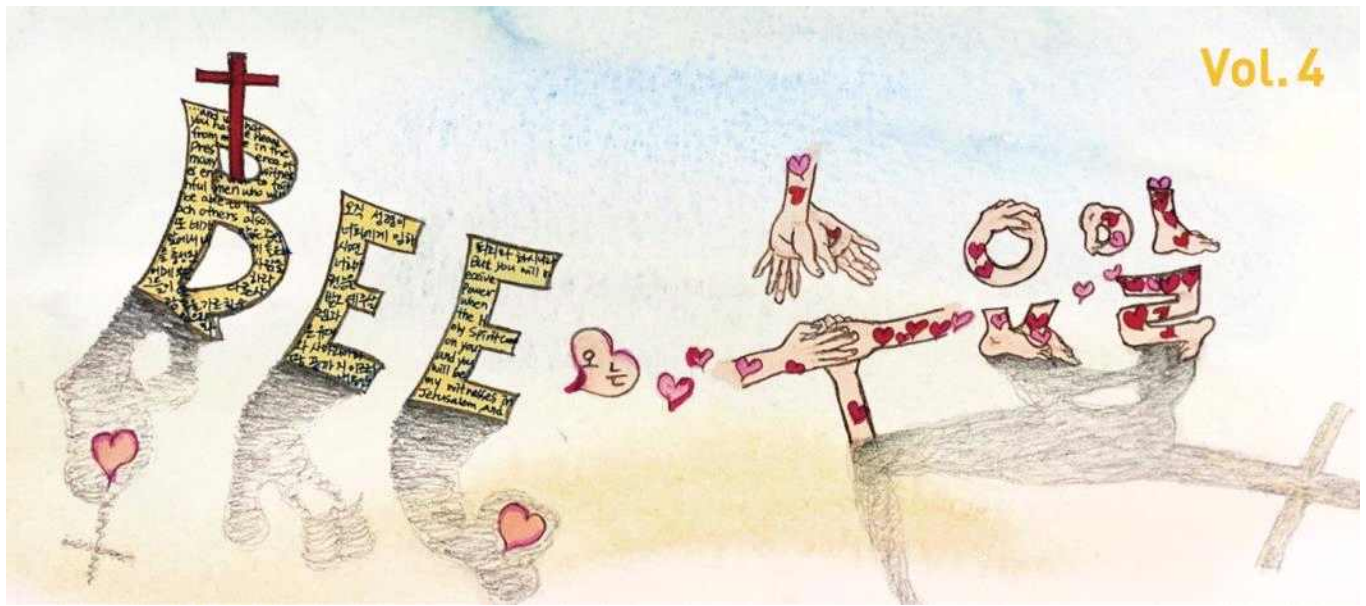




다섯번째 이야기

[2019 작품 속 부활이야기]

작품으로 보는 부활절, 그리고 나

생명이 움트고 꽃피우는 4월. 부활절을 맞이하여 미술사의 거장들 작품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부활하여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Pieta, 1498-1499;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 자신의 무릎에 안고 있고 예수님은 오른손을 떨어뜨린 자세로 있습니다. 이 자세는 모든 ‘피에타’ 제목을 가진 작품엔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있는데 요, 왜일까요? 고대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문이나 기념주 등을 제작하였는데 그 때 용감하고 의로운 죽음을 당한 병사들의 모습을 오른손을 떨어뜨린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서 의롭고 용감한 죽음을 표현할 때면 언제나 서양에서는 오른손을 떨어뜨린 포즈(pose)를 취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 피에타,
비티칸 시티 성 베드로 성당

19세기 신고전주의의 대가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에서도 혁명당원의 수장인 마라가 암살당하자 친구이자 같은 당원이었던 다비드가 영정 사진과 같은 마라의 그림을 헌정하였는데 여기서 마라 역시 오른손을 떨어뜨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의롭고, 죄 없으신 죽음인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26살의 젊은 미켈란젤로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 마리아가 가슴에 두른 휘장에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는 점점 작가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인정되어지는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로 도래함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또 ‘피에타’ 작품에서 표현된 옷 주름의 완벽함과 빈틈없는 구성에 입이 딱 벌어지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미의식인 대칭, 삼각형 구도의 안정감과 균형 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해부학을 바탕으로 표현한 인체의 표현 역시 보는 사람으로부터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런 완벽한 표현이 가능한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하얀색 대리석의 재료적 특징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하얀색 대리석은 이탈리아에서 많이 나는 대리석으로 색이 하얗고 매끄러우며 강도에 있어서 무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유럽의 조각가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이 표현하려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피에타’라는 이름으로 한 첫 작품이기도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창의력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4복음서(마27:58-60, 막15:46, 눅23:53, 요19:38-42)를 통해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으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릎에 앉고 비통하게 울었다는 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분명 마리아는 울면서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력으로 미켈란젤로는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형상화시켰으며 그 제목을 ‘피에타’라고 했습니다. ‘피에타’의 이탈리아 말뜻이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에 더 가슴 아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라파엘로, 그리스도의 변용,
목판 유채, 바티칸 미술관 소장.

두 번째 작품은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Transfiguration, 1516-1520)’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나, 부활의 예수님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찾아보았는데 가톨릭의 영향으로 ‘성모승천’의 그림은 많이 있으나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많지 않음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잘 알려진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마태복음 17장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줍니다.

작품을 보면, 대칭구도로 중앙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발아래는 함께 간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눈을 가리고 두려운 모습으로 있고, 그 아래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는,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이 있고, 그림의 왼편에는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9명의 제자들과 여인을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일반 사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간질에 걸린 아들을 고쳐 주실 분은 예수님이란 것을 암시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이 그림을 그리던 당시 라파엘로도 병에 걸려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며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라파엘로의 이름에서 ‘라파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자신과 그림 속 간질병 아이(결국 아이는 병이 나았음)를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양영희, giving and taking

마지막으로, 뉴욕에 와서 갖게 된 그룹 전시의 저의 작품(제목: ‘giving and taking’)을 소개하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그룹전의 주제는 ‘retrospect(회상)’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던 중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형태이지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중 ‘아담의 탄생’ 작품의 손 부분을 차용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왼쪽의 아담의 손은 연필로 드로잉 하였고, 오른쪽의 하나님의 손은 형태를 오려내어 겹겹이 붙여 깊이 두어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정형화된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정형화된 형태로 표현하기엔 그 깊이와 능력과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 겹의 종이를 통해서 다른 색과 다른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던 중,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고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유한한 인간인 내가 교만한 생각으로 한정 짓고 규정하면서 그 큰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에 갑자기 와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저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교만함은, 어느새 세련된 모습으로 잘 포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설고 생소한 이곳에서 어눌한 영어실력으로 미국인들과 지내면서 내 속의 교만함을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생각 속에서) 보게 하시고, 사회적 위치와 환경도 다 사라진 이곳에서 모두 다 다시 시작해야 함을 느끼면서, 한국에서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힘들이 있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환경을 공급해 주시고, 매일 매일 주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와서 제일 의지되는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언제나 저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시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글쓴이 양영희 집사]

2011년부터 시작한 성경공부가 BEE까지 인도해주어서 FTS까지 잘 마치고 2017년에 미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휴스턴에 가서 1년 조금 넘게 살고, 2018년 New York City로 이사해서 지금 1년이 되어갑니다. 7월에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매년 이사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항상 미리 가서 준비해주는 '여호와 이레'를 항상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항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승헌, Daniel), 남편(오정민)의 건강과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BEE의 보석 찾기

05. 권영조 권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2008년 JDS훈련이 마치고 다음 발걸음을 고민하던 중 영적 멘토이고 일대일 인도자이신 이승규 집사님의 권유로 시작한 2009년 온비아가 BEE와의 첫 만남이었다. BEE를 통해 바울에 대해 깊이 배우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나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으며 BEE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다. 오랜 기간을 통해 인도자가 되고 선교에 비전을 갖고 준비하던 중 편찮으신 친정엄마를 모시게 되어 현재는 BEE 월요, 토요기도모임에 전념하고 있다. 햄시바(BEE 월요기도모임)를 통해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언젠가 어디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에게 BEE는 신앙의 여정 중에 만난 '삶의 전환점'이다. BEE 세미나를 통해 복음을 깊이 깨달았고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소중한 기도의 지체들을 만난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한다.

가족은 남편(심동엽 목사)과 직장에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고 현재 산본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남편과 함께 섬기고 있으며 '침 선교'로 1년에 두세 번 해외 봉사를 하고 있다.

06.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세밀함과 담대함이, 부드러움과 강함이, 진중함과 적극성이 공존하는 분이십니다. 'Text'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함께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면 이분에게서 Text를 받지 않은 분이 없을 듯~~ㅎ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물러가고 꽃피우고 생명이 움트는 4월!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4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4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4월 6일(토)은 기도 테이블 '총출석의 날'입니다. '보고프다', '그립다', '만나고 싶다', '잘 지내고 있니?' 등의 메시지가 한 주간 동안 가득하기를 소망해봅니다.
3. 4월 27일(토)에 2019 상반기 온비아 수련회가 '강화'에서 있습니다. 100년 전에 복음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동교회' 탐방을 통해 긴 역사 속에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6월 16일(일)~21일(금)의 몽골 DPM 졸업식 및 FTS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몽골 땅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사역참여로 함께해요!
5. 기도 테이블 소식입니다.

* 3월 마지막 토요일(30일)에 부천 BEE 토요기도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 기도하고 있지만 어느 곳의 기도모임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가득한 기도모임입니다. 부천 BEE 토요기도모임~ 부흥! 있으리라~

